

캐릭터 별 백스토리

아엘 백스토리

‘프림투르’라는 대륙, 엘리우마 대륙의 남쪽에 위치한 대륙이다.
흑한의 날씨 때문일까, 그곳에서 탄생한 아엘 종족은 어렸을
때부터 얼음과 눈의 마법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

태어날때부터 그들을 감싸는 얼음과 눈은 그들을 흑한의 환경에
적응하게 했다. 차가운 눈과 같은 피부와 멀리서도 소리를 들을 긴 귀는
그들의 상징이 되었다. 흑한의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갔다.

프림투르 대륙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프림투르 지역의 곳곳에 발크베임의 마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너머의 대륙, 엘리우마의 패권국.
발크베임은 프림투르의 대륙을 넘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막아낼 수 있었지만
점차 강해지는 발크베임의 군세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결국 아엘족의 우두머리인 ‘에리안’은 발크베임의 영향력을 저지 하기
위해 혁명군을 도울 아엘을 모집한다.

선뜻 손을 들지 않는 아엘 중 단 한명의 아엘만이 손을
들어올렸다. 마법사의 마법에 아비를 잃고, 마물의 발톱에
어미를 잃은 아엘. 그의 눈에 망설임은 보이지 않는 듯 했다.

바다를 건너 엘리우마에 도착한 아엘은
발크베임을 향해 한발자국 걸어나갔다.

네페림 백스토리

발크베임은 엘리우마 대륙을 지배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마력의 선택을 받았다.

그 인구는 타 대륙을 모두 지배할 정도는 되지
못했다. 드넓은 대륙을 모두 지배하기위해 마법사들은
계획했다.

자신들보다 몸집이 작지만, 힘을 기르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인 ‘네페림’
자신들의 실험체로, 종으로 삼아 타 대륙까지 지배를 하기 위해.

‘네피림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마력이 없는 인간에게 마력을 강제로 집어넣는
프로젝트, 발크베임은 곧장 엘리우마의 네피림을 모두
잡아들었다. 프로젝트는 예상외의 실패를 반복했다.
마력의 과부화를 견디지 못한 실험체들은 곧장 고통에 비명질렀다.
그렇게 수백, 수천의 실험체가 사망했다.

하지만 발크베임은 멈추지 않았다.
강제로 끌려온 이들은 의문도 모른채 실험체가 되어 죽어나갔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수많은 시체위에 한명의 실험체가 서있었다.

그의 몸에서 빛나는 마력은 마치 천사와 같았다.
하나 그들은 몰랐다 천사의 안에 악마가 갇들어 있다는 것을.

‘네피림’은 증오와 분노로 실험실의 모든 이들을
죽였다. 그리고 다짐했다.

언젠가 자신을 이렇게 만든 발크베임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히스마 백스토리

용마법을 쓸 수 있는 마법사는 발크베임에 ‘카즈마’ 단

하나였다. 그 마법사는 실험을 좋아해 이런저런 실험을 하였고,
히스마는 그 실험체의 처음이자 마지막 성공한 실험체였다.
히스마의 몸 안에 용을 주입시키는 실험에 성공한 카즈마는 기뻐했다.

카즈마는 실험이 끝난 후에도 히스마를 몸 안의 힘에 익숙해지게 만들고
싶었다. 히스마는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하며 속으로만
생각했다. 카즈마를 죽이고 싶다고.

그 때, 다른 구역 쪽에서 실험에 성공 한 듯 환호성이 들렸다.
하지만 그 환호성도 잠시, 그 곳에서는 연구마법사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히스마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자신도 죽는구나
체념했다. 아니, 누군가 죽어줬으면 했다.

실험실을 박살 낸 것은 다름아닌 ‘네피림’이었다.
네피림은 히스마를 보며 같이 탈출하자고 말을 건넸다.
히스마가 주저할 때 네피림은 그를 무작정 들고 실험실을 떠났다.

연구실의 상황을 알고 지원을 온 상급 마법사는 절벽에서 히스마를 데리고 도망치고 있는 네피림을 공격했고,
네피림은 그 때문에 히스마를 손에서 놓치고 말았다.

히스마는 절벽에서 떨어지던 중 자신의 알 수 없는 용마법으로 인해 날개가 돌아나 날갯짓을 하게 되고, 자신과 떨어진 네피림을 볼 겨를 없이 조절 할 수 없는 날개에 의해 끌려가게 된다.

네피림은 히스마에게 어떤 말을 소리쳤다.
네피림의 발크베임을 향한 증오 역시 히스마도 똑같이 느끼며 복수를 다짐하며 용의 날개로 인해 하염없이 날아가던 그는 힘이 다해 어떤 숲에 쓰러진다.

그 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다.
히스마는 이 세계에서 용마법을 쓸 수 있는 게 본인 혼자라는 것을. 자신이 발크베임 상대로 얼마나 영향력을 펼칠지를..

인간 백스토리

‘마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형 ‘루민’과 둘이 살았다. 루민은 동생을 지키겠다는 책임감과, 혁명군으로써 마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정의감을 가졌고, 그 소년은 루민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

다른 이들은 인간들이 태생부터 마력을 쓸 수 없어 나약한 종족이라고 한탄하며 마법사들에게 복종하며 살았지만 루민은 그러지 않았다.
혁명군이 되기 전 부터 마법사들에게 몸과 정신을 고통과 억압받아도,
그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는게 지금의 이 각박한 삶을 이겨낼 것이라 믿으며 살았다.

몇년 뒤, 루민은 혁명군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살고 있었고 여러마을에서도 다 아는 영웅이 되었다.
동생은 그의 형을 우러러보며 자신도 형과 같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영향력을 주는 영웅이 될거라는 꿈을 키우며 자랐다.

평화롭던 어느 날
혁명군의 임무로 인해 3일간 마을을 떠나게 된 루민은 마을 입구에서 동생과 주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임무를 나갔다.
자신의 동생에게 자기가 없는 동안 마을을 잘 부탁한다고.
그 소년은 겨우 3일밖에 안된다며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라고 인사한다.

그게 소년이 형을 본 마지막 모습이자 마지막 대화였다.

.
.
.

한 소년은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소년의 표정은 밝았다.

그의 표정에는 자신의 형처럼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혁명군이 되어 영웅이 되겠다는 강한 다짐이 있기
때문에.

드워프 백스토리

지도상으로 프림투르 대륙의 왼쪽, 엘리우마대륙의 왼쪽아래에 위치한
‘내추테크’라는 아주 큰 섬에서 살고 있는 드워프 종족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태생적으로 다른 종족들에 비해 머리가 뛰어난 종족인 드워프들은 평화를 중시했다.
엘리우마에 혁명이 막 일어났을 때,
그 곳에 있던 드워프들 몇몇이 우연히 인간들의 기계를 보게
되었고 섬으로 돌아와 그것을 연구하며 자신들의 마력에 동기화
시키려는 등 기계에 대해 흥미를 보였다.

혁명군은 자신들이 불리한 전세를 돌리기 위해 드워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드워프들은 고민에 빠진다.
드워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인간들 뿐이 아니었다.
발크베임도 드워프들의 힘을 높게 평가 하여 자신들을 도와 엘리우마를 정복하면
드워프들에게 만족 할 전리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

시간이 지나 발크베임이 자신들의 섬에도 침범해 영향을 펼치면 곤란한 드워프들은
손을 잡고 지원을 해주는 척 자신들이 연구하고 남은 기계의 샘플들을 발크베임에
건네며 도움을 주고,
발크베임이 쉽게 엘리우마를 정복을 하지
못하도록 인간들에게는 무엇을 해줘야 할지
고민을 하던 중

드워프들은 한 드워프의 말에 놀란다.
그 드워프는 자신이 파견을 가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드워프들 사이에서도 비범한 지능을 가진 인재이기
때문.
드워프들은 그녀라면 도움을 줄 수 있겠지하며 그녀를 믿고 파견시키게 된다.

그녀는 타 대륙으로 넘어간다면 새로운 것들을 보고 더 많은 지식을
얻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았다.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어린 아이인줄 알았던 그녀를 마물들이 공격해왔고,
갑작스런 공격에 당황하여 큰 위기에 처해 있던 때
한 남자가 나타나 그녀를 구해준다.

드워프를 구해준 그 남자는 드워프를 마을로 데려다 주고 자신을 혁명군이라고
전하며 떠나가 버린다.

혁명군의 한 사내와 있던 시간은 짧았지만,
많은 것을 떠올리게 된 드워프는 자신을 반성한다.
눈이 쌓인 엘리우마의 한 작은 마을을 나온 그녀는 발을 한발짝 내딛는다.
커다란 발자국을 남기며.